



## 삼성전자, 세계 최초 나노 메모리 상용화 시대 열어

삼성전자(대표 이기태 [www.sec.co.kr](http://www.sec.co.kr))는 지난 16일 90나노 D램 양산기술을 확보하고, 업계 최초로 2기가 NAND 플래시메모리 시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2기가 NAND 플래시 메모리는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4기가바이트 메모리카드가 제작 가능하며, 여기에 기존 음악 CD 70장이나 영화 비디오 테이프 4편의 데이터를 대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NAND 플래시 메모리는 현재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캠코더 등에 디지털기기에 채용되고 있는데 수요가 연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삼성전자의 표준 사양으로 휴대폰에도 채용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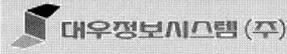
삼성전자는 2003년 하반기부터 300mm 전용 라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함께 공개한 90나노 D램 공정기술은 현재 건설하고 있는 300mm 웨이퍼 라인(12라인)에서 차세대 512메가 D램 및 1기가 D램에 양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90 나노 공정으로 512메가 D램에 대해 양산성을 확보한 것은 삼성전자가 업계 처음이며, 현재 양산중인 0.12미크론 공정 대비 생산성을 두 배 이상 향상 시킨 것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90나노 공정 기술은 기존 라인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 투자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서 투자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향후 70나노급 공정 기술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완벽한 평탄화 기술을 실현하여 메모리와 로직 기능이 합쳐지는 퓨전(Fusion) 메모리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대우정보시스템, 대우조선해양 모바일 현장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대우정보시스템(대표 박경철 [www.daewoobrenci.com](http://www.daewoobrenci.com))은 대우조선해양에 구축한 '선박용 파이프 적치(積置) 보급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Mobile 프로젝트로는 보기 드물게 일반 제조업체의 현장업무에 적용한 현장업무자동화(FFA) 시스템으로써 선박 제조 시 들어가는 파이프의 적치장 업무를 이동통신망과 PD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모바일 시스템의 도입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회사의 기간시스템과 연결해 제품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Web기반의 유무선을 모두 지원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PDA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도 PC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우정보시스템의 Mobile 솔루션팀은 이번 프로젝트에 데이터 통신속도 향상 및 데이터 사용료를 최소화 하기위한 XML/압축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PDA용 브라우저(WITS Browser)와 XML문서 자동 생성 기능을 포함한 EJB(Enterprise Java Beans)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을 적용하였다.



## 포스데이터, 국내 최초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솔루션 개발

포스데이터(대표 김광호 [www.posdata.co.kr](http://www.posdata.co.kr))는 최근 명지대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모형 솔루션'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모형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측정해 향후 변화량을 예측, 분석함으로써 교통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개발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되는 것이다.

포스데이타와 명지대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 시스템은 기존의 순차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달리 교통관련 정보를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스템 개발에는 포스데이타가 자체 개발한 병렬처리 슈퍼컴퓨터가 적용되며 명지대의 교통공학연구소 조중래 교수 등 연구진이 참여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1단계 개발이 9월말에 완료되며, 2단계가 오는 2003년경 완료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현재 5~10분전의 데이터에 의존해 실시하는 교통흐름 제어, 교통정보 제공 등 각종 교통관련 정책을 실시간 정보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도로 개설,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교통정책 수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에게도 단순한 현재 교통정보보다는 실제 자신이 통과할 시점의 시뮬레이션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포스데이타와 명지대는 이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면 서울 등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현재 개발된 솔루션이 없으므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 SK Telecom

2002 아시안게임 공식파트너

### SK텔레콤, 아시안게임 국제로밍서비스 대폭 확충

SK텔레콤(대표 표문수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은 국제로밍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 및 김해 국제공항 로밍부스에 중국어/일어가 가능한 직원10여명과 영어/중국어 지원 단말기 6,000대 및 영어/중국어/일본어 지원 단말기 1,000대를 추가 배치하고, 자동로밍센터 ARS서비스에 중국어와 일본어 코너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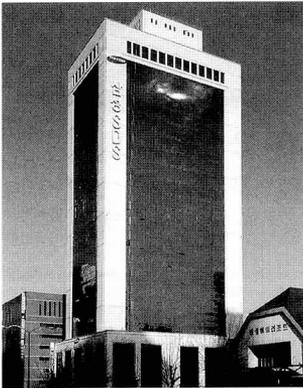
SK텔레콤은 또한 개막에 앞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busanasiangames.org](http://www.busanasiangames.org))를 통해 선수단 및 기자단의 휴대폰 임대예약을 접수받은 데 이어, 선수촌, 메인미디어센터, 롯데호텔 등 부산 시내 3곳에 임시 렌탈부스를 설치해 대회방문 외국인들이 손쉽게 국제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국 1, 2위 이동전화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은 대회 기간 중 각각 7명과 6명의 직원들을 SK텔레콤에 파견해

중국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로밍서비스를 제공중인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주요 국가들에 이어 부산아시안게임 개막 시점에 맞춰 마카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카타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 GSM사업자들과도 반자동로밍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이들 국가 고객들이 입국 후 전용폰만 임대하면 자국내 번호를 그대로 이용해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SK텔레콤은 영어 15,000부, 일본어 10,000부, 중국어 5,000부 등 국제로밍 서비스 외국어 매뉴얼을 비치하고, 렌탈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SMS 경기속보 통보 및 관광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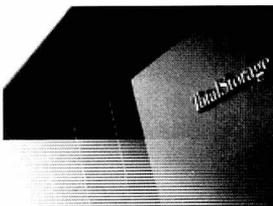


### 삼성SDS, 자바기반 스마트카드 운영체제 개발

삼성SDS(대표 김흥기 [www.sds.samsung.co.kr](http://www.sds.samsung.co.kr))가 비자카드용 스마트카드 운영시스템(COS) '자바 COS'를 개발하고 국내는 물론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삼성SDS가 이번에 선보인 자바COS는 한 장의 카드에 다양한 발급사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 키 이슈어'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세계 스마트카드 국제표준인 EMV(Europay, Mastercard, Visa) 인증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방형 자바COS에 탑재되는 자바카드는 고용량 메모리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 자바기반의 운영시스템보다 4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삼성SDS는 "기존 마그네틱카드 위조율이 급증하면서 스마트카드 수요가 99년 이후 연 45% 고성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방형 자바카드의 COS를 개발함으로써 수입대체는 물론 전세계 스마트카드 시장을 향한 역수출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IBM, ESS 모델 800 공급 호조

한국IBM(대표 신재철 [www.ibm.co.kr](http://www.ibm.co.kr))이 지난 8월말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차세대 디스크 스토리지 신제품 "ESS 모델800"이 출시

직후부터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IBM 스토리지 사업본부는 ESS 모델800을 공식 선보인 지 한 달이 채 안된 현재, 포스코, ING생명보험, 대한항공 등 금융, 제조, 항공 분야의 고객 10여 곳을 이미 수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우수 대형고객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이 늘어나고 있어 하반기 비즈니스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IBM 스토리지 사업부 강석균 실장은 “ESS 모델800을 출시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비즈니스 성과 및 제품에 대한 고객의 우호적 반응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대표적인 고객사 이외에 3분기 이내에 25곳 이상의 고객사가 ESS 모델800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50여 고객사와의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IBM은 단순 하드웨어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연속성 및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재해복구, 스토리지 통합 등과 같은 솔루션에 기반한 스토리지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IBM 의 디스크 스토리지 신제품인 ESS 모델800(Enterprise Storage Server Model 800)은 기존 제품에 비해 데이터 처리 시간이 50% 단축되고, 성능은 두배 이상 향상된 강력한 성능의 제 3세대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서버 모델이다. 특히 IBM 자율컴퓨팅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인 자가 관리, 자가 치유 기술을 보유하며, 데이터베이스 및 트랜잭션 프로세싱 성능이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LG텔레콤-디지털아리아, 모바일 플래시 서비스 개시

LG 텔레콤(대표 남 용 [www.lg019.co.kr](http://www.lg019.co.kr))과 모바일 솔루션 개발업체인 디지털아리아([www.digitalaria.com](http://www.digitalaria.com))가 유선 상에서 제공되던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휴대폰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플래시(Mobile Flash)”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 플래시는 전 세계의 홈페이지, 웹 애니메이션, 동영상, 게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현재 플래시를 재생하기 위한 PC용 플레이어의 경우 약 3억 7,000만 개 이상이 다운로드 되어 사용되고 있는 등 플래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LG텔레콤은 기존 유선상에서 제공되던 홀맨 등의 웹 애니메이션을 무선인터넷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래시 기술을 휴대폰에 탑재, LG 텔레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실시간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LG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휴대폰에서 상용화한 모바일 플래시는 차세대 애니메이션 기술인 벡터 그래픽과 사운드, 텍스트, 액션 스크립트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지원함에 따라 애니메이션에서부터 게임, 날씨, 지도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선상에서 제공되는 플래시 콘텐츠를 모바일 상에서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유선 플래시 CP(Content Provider)는 저렴한 비용으로 콘텐츠를 유선과 무선에 공급할 수 있어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LG텔레콤 데이터서비스 기획팀 문성목 차장은 “지금까지는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간단한 만화 수준이었으나 모바일 플래시 서비스 등장에 따라 019 PCS 가입자는 선명한 그래픽에 음향효과까지 더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올 연말까지 즐라맨, 엽기토끼 등 모바일 플래시 콘텐츠를 1000여개 이상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텔레콤은 모바일 플래시를 캐릭터/멜로디 분야에 먼저 적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E-Card, MMS, 광고/쿠폰/복권, 플래시 지도, M-Commerce 등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할 계획이다.

모바일 플래시 이용방법은 무선인터넷 이지아이(www.ez-i.co.kr)에 접속, 2.캐릭터/멜로디 → 9.모바일 플래시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정보이용료 : 300~500원) 받으면 된다.